



조슈아 사이먼

카이로의 모세

카이로 대이집트박물관의 개관은 고대 이집트 유물의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순간,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마지막 저서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1939)는 모세를 이집트로 돌려보내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 헌정된 대이집트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 GEM)은 2025년 말 카이로에 문을 열었고, 기자의 피라미드 인근에 자리한다. GEM은 십수 개의 주요 전시실에 걸쳐 10만 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한 거대한 컬렉션의 고고학 박물관으로, 약 7,000년에 이르는 시기를 다룬다. 파라오 왕조에 초점을 두되 그리스, 로마, 콥트 시대를 거치고, 선사 및 선왕조 시대 유물도 일부 포함한다. 20년에 걸친 건립과 나란히 대규모 송환 운동이 벌어졌고, 약탈된 유물을 이집트로 되찾아오려는 노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도난당하거나 ‘선물’로 넘어간 주요 유물들은 여전히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런던 영국박물관의 로제타석, 베를린 노이에스 무제움의 네페르티티 흉상, 파리 루브르의 덴데라 황도대 같은 유명한 유물들이 아직도 외국에 있다. 송환을 기다리는 이 목록에 인물을 하나 더할 수 있다. 역사상의 실존 인물은 아닐지 몰라도, 고대의 혈통을 지닌 이집트인. 바로 모세다.

모세의 이야기가 히브리 성경에 상세히 적혀 있고(고고학 연구로 뒷받침되는 것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GEM에 전시된 수천 점의 유물 어디에도 모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에게 헌정된 전시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어차피 GEM은 역사 박물관이고, 모세는 신화적 인물이니까.

파리와 런던과 베를린이 고대 이집트 통치자와 유물의 사후(死後)가 갖든 뜻밖의 안식처이듯, 카이로의 모세가 밟는 여정 또한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된다. 바로 오스트리아 빈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인간 모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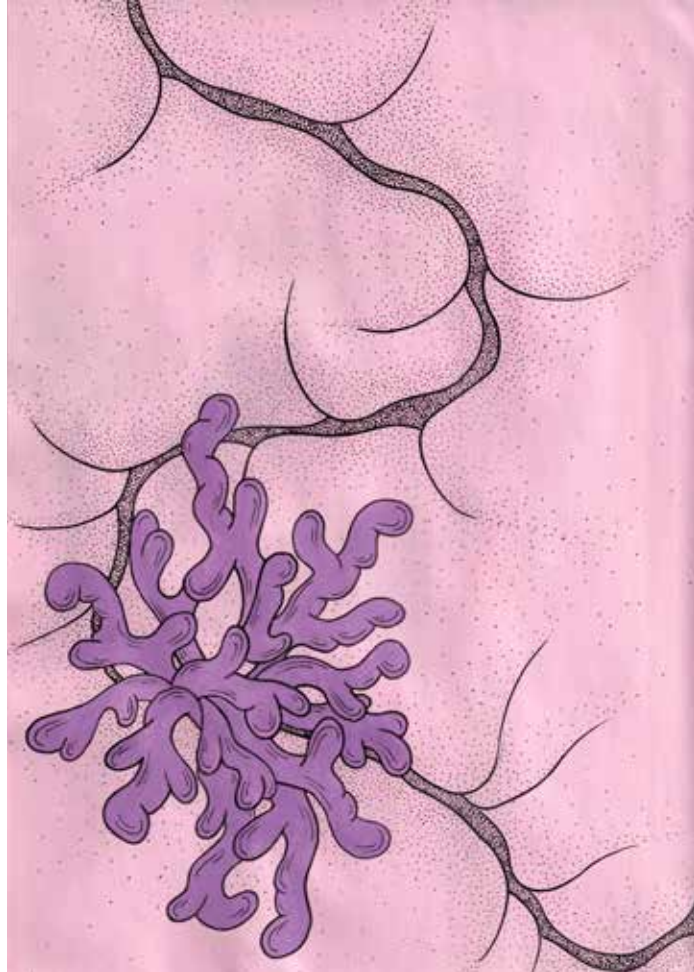
유일신교』(1939)는 그가 빈의 집을 떠나 런던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던 말년에 쓰였다. 트라우마와 기억의 맥락에서 작업하는 프로이트에게, 모세는 『토템과 터부』(1913)와 1921년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에서 펼친 이론을 유대 민족의 이야기로 잇는 ‘원초적 아버지’다.

이 책은 모세와 그의 삶과 죽음, 유일신교와 반유대주의의 기원, 이집트의 노예들이 한 민족이 되는 과정, 그리고 모세의 종교 곧 유대교의 탄생에 관한 비범하게 창의적인 사변이다. 프로이트는 이 책에서 반유대주의를 직접 다룰 때, 그것을 신체상(身體像)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할레라는 현실이 가하는 거세 불안(그는 할레가 고대 이집트의 전통이었다고 짚는다)이 반유대주의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반유대주의 같은 사회적 병리를 풀기에는 불충분할지언정 모세의 이야기가 프로이트 자신의 정치적 현실과 맞물려 펼쳐지는 방식은 잘 보여준다.

프로이트는 이집트학자,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동원해 모세가 기원전 13세기에 살았던 이집트인, 사제이거나 귀족이었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의 모세는 성경 이야기가 전하듯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에서 발견한 노예의 아들, 곧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다. 프로이트의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지 않았고,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임을 모른 채 궁정에서 권력에 오르지도 않았다. 프로이트에게 모세는 기원전 14세기에 통치한 파라오 아케나톤(아멘호테프 4세)이 세운 태양신 아텐(Aten) 숭배의 원(原)유일신 교단의 후예였다(그의 정실 왕비는 네페르티티였고, 아들 중 하나가 소년왕 파라오 투탕카멘이었다). 아케나톤의 종교는 전통적 이집트 다신교를 버리고 유일신교에 가까운 숭배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멘호테프 4세는 자신의 통치를 아텐에게 바치고자 이름을 아케나톤으로 바꾸고, 그 목적으로 궁정을 테베(룩소르)에서 아케타텐(아마르나)으로 옮겼다. 프로이트의 모세는 수십 년 뒤에도 이 주변화된 종교를 여전히 신봉하던 이들 가운데 하나였고, 이집트의 노예들을 자신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목표에 이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뒤, 이 종교를 중심으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묶었다. (성경 이야기에서 모세의 말더듬은 노예 신분의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난 형제 아론이 통역자 노릇을 하게 만들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던 탓에 노예들의 언어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후대에 문학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유일신교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택받은 민족이었다. 다만 그들을 선택한 이는 어쩌면 신이 아니라 다른 한 인간, 한 이집트 왕자였을지 모른다.



모세의 이야기는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담겨 있는데, 크게 보면 한 무리의 노예가 재산을 소유한 민족이 되었다가 흩어지기까지 그들이 따라야 할 도덕률을 제시한다. 모세는 신성(神性) 자체를 바꾼 자로 여겨진다. 그는 신성을 추상화했다. 우상을 율법으로, 이집트 신전을 언약궤로 바꾸고, 기념비를 두루마리로 대체했으며, 이는 그를 건축가가 아니라 문헌학자인 지도자로 세웠다. 정작 성경 속 모세는 이집트 왕자이자 히브리 노예였고, 요게벳과 아브람의 아들이자 미리암과 아론의 형제였으며, 동시에 파라오 가문의 양자이자 손자였다.



이집트 왕자로 행세하는 히브리 노예였다. 프로이트는 두 정체성이 하이픈으로 이어진 이 건국의 아버지를 빌려 자신의 곤경을 다룬다. 모세를 하나의 대각선으로 만들면서, 그의 이야기는 성경 속 유대인의 기원 서사를 가로지르고, 유대인으로서 프로이트 자신이 마주한 살인적 적대를 지나, 오늘날 우리의 방향 감각까지 꿰뚫는다. 프로이트는 이 책에서 유대 민족이 자기 관습과 기원을 인식해온 방식을 허문다. 유대인으로서 마주한 끔찍한 현실의 토대를 뒤흔들기 위해, 그는 정치적 조건을 바꿀 선들을 다시 그어야 한다. 그 자신마저 필연적으로 바꿔놓을 방식으로 말이다. 하이픈으로 이어진 독일계 유대인과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대인”이나 “독일인”이나 하는



적대적 양극성이 지워버렸다. 국가사회주의 아래에서 이 양자택일의 등식은 유대인에게는 죽음과 죽음의 수용소라는 절멸의 공간을, 독일인에게는 삶 그 자체와 더불어 합병된 영토와 경기장이라는 생활공간을 선고했다. 유대인은 몸도 말도 없는 존재를 선고받았고, 독일인은 영원한 몸과 행동의 언어를 부여받았다. 나치즘 아래 이 극단적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동안, 하이픈의 한쪽인 “유대인” 편에서는 다른 접근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예컨대 아르놀트 쇤베르크는 빈에서 마주한 현실이 미완의 오페라 〈모세와 아론(Moses und Aron)〉(1930-32)을 작곡하기를 요구한다고 느꼈고, 이 작품은 유대 정체성의 발현으로 천명되었다. 프로이트는 유대 민족의 시조 모세에게로 거슬러 올라가, 그조차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마주한 양극성을 푸는 길을 찾는다. 이로써 프로이트는 유대 전통을 허물 뿐 아니라 양극성 자체를 배반한다. 그는 하나의 신화를 다루며, 그 텍스트를 분석해 이야기가 감춘 봉합선을 찾아낸다. 그가 그러는 것은 허구의 신화 뒤에 놓인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현재에 또 하나의 허구를 들이밀기 위해서다. 그것은 파괴적 적대를 따라 정렬된 정체성들을 허물며 주입되는 하나의 잠재적 역사다. 프로이트의 대각선 모세는 불안정을 일으킨다. 그는 구조이면서 곧 붕괴인 피라미드를 체현한다.

프로이트의 모세는 그루초 막스의 이미 씹쓸한 농담을 한층 씹쓸하게 비튼 것이다. 그는 자기를 받아줄 클럽의 회원도, 억지로 떠밀려 들어간 클럽의 회원도 되고 싶지 않다. 프로이트는 자기 시대의 근본적 적대에 직면해 등식의 한 변형 안쪽에서 대립 자체를 뒤흔든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 국가라는 관점에서 읽으면, 이 책이 제시하는 시대착오는 당면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을 활성화한다. 그것을 곱씹다 보면, 문득 자기 이야기의 반대편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프로이트가 적대를 배반하는 것은 열린 물음으로서의 유대인됨에 대한 충실함이다. 언어, 영토, 문화, 종교, 민족, 국가의 공고화를 넘어서는 그런 유대인됨 말이다. 그것은 세계를 도발하고 뒤흔드는 자로서 유대인을 되돌려놓는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어찌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어찌면 우리가 진리로 아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음을. 이것이 유대인이 체현하는 의심의 해석학의 기본이다. 프로이트의 모세가 “유대인”이 아직 하나의 국민이나 종족, 인종으로 수렴되지 않는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던 시대에서 왔다는 사실은 그것을 하나의 물음으로 남겨둔다. 오늘 그것을 읽으면 대지가 움직이고, 시리아-아프리카 지구대가 열리며, 바다가 갈라지고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대이집트박물관에서 열릴 모세 전시는 붕괴이자 균열로서의 피라미드를 비추는 대각선의 거울이며, 불가피한 만큼이나 불가능하다.

프로이트는 책의 첫머리를 이런 말로 연다.

한 민족이 가장 위대한 아들로 기리는 사람을 그 민족에게서 빼앗는 일은 가벼이 행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그 민족에 속한 이가 그리한다면 더욱 그렇다. 대이집트박물관의 개관은 모세를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아들 가운데 하나로서 송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 프로이트가 유대 문화의 비유들을 흐릿하게 가리고 보편화한 다른 저작들(예컨대 1905년 책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과 달리, 『모세』는 유대적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유일한 책이다. 이 모든 일은 독일에서 나치가 세력을 넓히고 오스트리아가 병합되던 한가운데서 일어났다. Sander Gilman, *The Jew's Body*, Routledge, 1991, especially chapter 5: "The Jewish Genius: Freud and the Jewishness of the Creative," pp. 128-149

2. Freud, *Moses and Monotheism* [1939], trans.: Katherine Jones, Vintage Books, 1955, p. 116-117

3. Samuel Weber, *Targets of Opportunity: On the Militarization of Thinking*, Fordham University Press, 2005, pp. 63-89

4. 얀 아스만이 프로이트의 『모세와 유일신교』를 두고 행한 "기억사(mnemohistory)"는, 1922년 에른스트 젤린의 저작 『모세와 그가 이스라엘-유대 종교사에서 갖는 의미』(Mose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israelitisch-jüdische Religionsgeschichte)처럼 출처를 밝히지 않은 직접적 참조들을 포함한다. 아스만에 따르면 "이집트인 모세"라는 발상은 프리드리히 실러가 1790년에 쓴 에세이 『모세의 사명(The Mission of Moses)』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1819년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내놓은 명제, 곧 모세가 다름 아닌 그의 제자이자 오른팔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살해되었다는 명제가 있다. 종합하면, 아스만은 모세의 이야기가 독일 계몽주의를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보여준다. 다음을 참조하라. Jan Assmann, *Moses the Egyptian: The Memory of Egypt in Western Monotheism*,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5. 토마스 만의 4부작 소설 『요셉과 그 형제들』(1933)도 이집트와 히브리 문화의 융합이라는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 소설에서 만은 창세기 속 야곱과 그 아들들의 성경 이야기를 고대 이집트 왕조의 계보와 시간선상에서 맞추어, 요셉이 아케나톤(책에서는 아멘호테프)의 궁정 자문관이었다고 결론짓는다. 만은 요셉을 아케나톤의 자문관으로 기록이 잘 남은 인물 오사르세프와 동일시한다. 네페르티티 왕비는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파라오의 수석 자문관 포티파르(페테프레)의



아내이자 “달의 수녀(moon-nun)”인 무트엠에네트와 나란히 놓인다. 포티파르는 아마르나 왕실에서 궁정 호위대장이었다고 전해진다. 요셉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여인인 이 달의 수녀는 요셉을 두 번째로 옥에 갇히게 만들어 그 후손이 노예 신세를 선고받게 한 장본인으로 지목된다. 출애굽기가 전하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 이야기는 요셉으로부터 열 세대 뒤에 일어난 것으로 설정되며, 이는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시대에 해당한다.

6. 프로이트의 『모세』는 끝없는 서가를 낳았다. 이 책은 그것이 이루어 한 바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문화 비평과 역사 평가의 장으로 되돌아왔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책들을 들 수 있다. 요세프 하임 에루살미, 『프로이트와 모세(Freud's Moses: Judaism Terminable and Interminable)』(에일 대학교 출판부, 1991); 대니얼 보야린, 『비영웅적 처신: 이성애의 발흥과 유대인 남성의 발명(Unheroic Conduct: The Rise of Heterosexuality and the Invention of the Jewish Man)』(캘리포니아 대학교 출판부, 1997); 자크 데리다, 『아카이브 열병: 프로이트적 인상(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에릭 프레노위츠 옮김, 시카고 대학교 출판부, 1998); 에드워드 W. 사이드, 『프로이트와 비유럽인(Freud and the Non-European)』(버소, 2003); 재클린 로즈, 『시온의 문제(The Question of Zion)』(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 2005); 그리고 페터 슬로터다이크, 『데리다, 이집트인: 유대 피라미드의 문제에 관하여(Derrida, An Egyptian: On the Problem of the Jewish Pyramid)』(빌란트 호반 옮김, 폴리티 프레스, 2009). 이 책들 가운데 다수는 서로 대화를 나눈다. 프로이트와 동시대인들에게 이 책은 실수이거나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프로이트 자신도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쓰고 펴내는 일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한다. 이는 편지들(“모세가 내 상상을 놓아주질 않는다네... [그것은] 내게 하나의 고착이 되어버렸어”라고 그는 1935년 5월 2일 이미 하이파로 피신해 있던 아르놀트 츠바이크에게 보낸 편지에 썼다)과 책 자체의 각 장 서문(“나 자신도 이 재구성에 약한 것들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강한 것들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작업을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는 데 찬성하는 논거들이 우세하다.” Freud, Moses and Monotheism, p. 50)에 남아 있다. 유대 철학 연구자 마르틴 부버는 1945년 자신의 책 『모세』를 각주 하나로 열며 이렇게 적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처럼 자기 분야에서 그토록 중요한 학자가, 근거 없는 사변에 기댄 이토록 비학문적인 책을 펴낼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의아한 일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Martin Buber, Moses: The Revelation and the Covenant [1945], Humanity Books, 1988, p. V

7. 괴테의 추정을 좇아, 프로이트의 모세는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 살해된다. 길 아니자르의 표현을 빌리면, 유대인의 집단적 죄책은 모세 살해에서 비롯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는 집단적 무죄를 제공한다(배신당하고 처형된 예수가 자기를 따르는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이다). 아니자르는 죄책에서 무죄로 향하는 이 문명사적 전환을 “프로이트가 유대인이었다면, 모세는 이집트인이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기독교인이었다면, 예수는 유대인이었다”라는 명명한 치환의 공식으로 설명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Gil Anidjar, Blood: A Critique of Christian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p. 248

8. 우테 홀은 이를 매체적 변화와 이주, 그리고 새로운 법적 구조가 구조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인 “모세 콤플렉스(Moses complex)”라 불렀다. 다음을 참조하라. Ute Holl, The Moses Complex: Freud, Schoenberg, Straub/Huillet, Diaphanes books, 2016

9. 철학 연구자 함맘 알도우리는 그를 “계보를 결여한 이집트 왕자”라 부른다.

10. 유대계 독일 신학 연구자이자 철학자인 프란츠 로젠츠바이크(1886-1929)는 바로 이러한 존재 양식을 묘사하기 위해 Bindestrichjudentum(하이픈으로 이어진 유대인됨)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11. 다음을 참조하라. Boaz Neumann, Nazi Weltanschauung—Space, Body, Language, Haifa University Publishing House and Sifriat Ma'ariv, 2002 [히브리어 저작]

12. 하이픈으로 이어진 자기 정체성의 양극화에 맞서 싸우던 독일계 유대인과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은 유대 민족주의와 시오니즘에서부터 자신의 유대인됨을 부인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그 양극성을 존중하며 작동하는 다양한 방식을 내놓았다. 장마리 스트로브와 다니엘 위예가 신크의 오페라를 각색한 영화 〈모세와 아론〉(1973)은 일종의 섹슈 미학을 고집하며, 추상적 신성과 우상숭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독해를 제안한다. 이 영화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의 유목민으로 그리면서, 셈주의라는 주제를 통해 유대와 아랍의 친연성을 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신크의 원작보다 프로이트의 『모세』를 더 충실히 따른다. 중부 유럽의 제국들이 붕괴한 뒤 유대인들은 국민국가 건설의 시기에 이방의 외보인이라는 역할을 떠맡아야 했다. 한나 아렌트는 그런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와 자신을 동일시한 이들이 어떻게 위협으로 여겨졌는지 설명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Arendt, “The Jews and Society,” in: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pp. 5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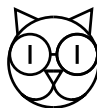
13. 슬로터다이크는 짧은 저서를 통해 꿈을 해석하는 일군의 저자들(성경의 요셉, 프로이트, 데리다)을 차례로 살피며, 피라미드의 건축에서 데리다의 해체를 묘사하기에 가장 알맞은 형식을 발견한다. 그는 해체를 붕괴의 궁극적 구조와 동일시하며, 피라미드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제자리에 서 있다. 그 형식이란 다름 아니라 건축가의 설계에 따라 제 붕괴 이후의 모습처럼 보이도록 지어진 구조물의 해체 불가능한 잔여이기 때문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Sloterdijk, Derrida, An Egyptian, p. 27

14. 다음을 참조하라. Freud, Moses and Monotheism, p. 3



저자 소개

조슈아 사이먼은 작가이자 큐레이터다. 그가 기획한 전시로는 《슬라임(Slime)》(빈 제체시온, 2024), 《디비주얼(The Dividual)》(로이파나 쿤스트raum [뤼네부르크] 및 로스앤젤레스 컨템퍼러리 아카이브, 2021-22) 등이 있다. 『네오머티리얼리즘(Neomaterialism)』(스턴버그 프레스, 2013)의 저자이며, 『솔루션 196-213: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합중국(Solution 196-213: United States of Palestine-Israel)』(스턴버그 프레스, 2011)과 『함께 있음은 있음에 앞선다: 「아이들은 공산주의를 원한다」를 위한 교과서(Being Together Precedes Being)』(아카이브 북스, 2019)의 편자이고, 잉고 니어만과 함께 『솔루션 275-294: 코뮤니스트 어나니머스(Solution 275-294: Communists Anonymous)』(스턴버그 프레스, 2017)를 공동 편집했다. 현재 자신이 편집 중인 에세이 선집 『반혁명으로서의 디지털 혁명(The Digital Revolution as Counter-Revolution)』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Wild Papers 편집자: 잉고 니어만

영어 번역: 박재용

영어 편집: 로산나 맥래플린

삽화: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국문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6, Joshua Simon, Eva Fabregas & Wild Publishing,

a division of Institute Art Gender Nature at HGK Basel FHNW, Switzerland